

[단독] 올해도 불수능...  
평가원 "쉬운 것보다 어려운 게 낫다"

[중앙일보] 입력 2017.01.16 02:30 수정 2017.01.16 03:08 | 종합 10면 지면보기▶

올해 고교 3학년이 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지난해 수능과  
같이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수능을 출제·관리하는

# 2018학년도 불수능예상, 수학킬러, 어떻게 대비할까?

## 오르비클래스 수학1타 수학 박주혁T

2017년도 벌써 2월이 끝나갑니다.

평가원은 기사처럼(사진) 어려운수능이 좀 더 낫다고 표방하고 있고요, 이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듯  
수학과목에서 (그리고 국어과목에서) 변별력이 생길것이라고 예측하는 상황입니다.

(1.16 기사링크 : <http://news.joins.com/article/21126905> , 마지막에 기사첨부합니다)

이러한 기조가 현실이 된다면 불수능과 킬러는 예측된것이나 마찬가지로이고,  
그리고 사실 다들 쉽다고 말했던 2015,2016 수능에서도 수학에서의 변별력 있는 문항출제는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기본개념을 닦아나가는 1,2월에도, 고난이도 문제를 위한 초석을 닦아 나가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처음에 어려워하던 어려운 3점이나, 쉬운 4점 문제들은 지금 당장은 조금 벅찰수 있으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어렵지 않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성실함이 해결해 줍니다.)

그렇다면, 정말 변별력을 가지는 3문제 (또는 4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대치동 유명강사의 인강을 그래도 따라가면 될까요?

흔히 말하는 도구정리, 따름정리에 이은 스킬들을 많이, 더 많이 공부하고 익히면 될까요?

KILLER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실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능합니다.

## 첫 번째 . 킬러를 도대체 언제 시작해야 하는가?

### (D-100 이냐 / 빠를수록 좋은가)

- 일반적으로 킬러문제의 대비라 하면, D-100부터 (그러니까 8월즈음입니다) 하는 것이 맞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의 경우, “아직은 부족하다.” / “조금 더 튼튼하게 기본기를 해야한다.” / “더 많이 배울것이 남아있다.” 등의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서 제일 경계해야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 이야기인 “아직 배울것이 많이 남아있다”입니다. 보통은 “심화단계”로 포장된 수업에서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근사를 이용한 최단시간 풀이, 대학과정을 고등과정으로 끌고 내려오기, 문과의 경우 이과 미적분을 배우면 문과 미적분이 쉬워진다는 이야기 등등이 있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 거짓에 가깝고, 수업을 판매하기 위한 상술에 가깝습니다. 그런식으로 계속해서 무언가를 배워나가야 한다면, 수능보는 그날까지 무언가를 계속 배워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문제풀이의 도구가 점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강의를 듣다보면 굉장히 쉽게 해결되지만, 막상 내가 풀려고 하면 문제풀이의 갈래가 너무 많이 떠올라 “뭘로 풀어나가야 하지?” 라는 고민을 해 보신 분들이면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인지 공감 되실겁니다.

실제로, 수능수학에서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받는 교수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굳이 너무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물론, 따름정리가 도움이 되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이 “내가 직접” 공부하다가 체득한 것이냐, 아니면 남이 알려주는 것을 받아먹기만 하는 것이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 그렇기에. 킬러는 3월에 시작하는 것 입니다.

단순히 떠먹여 주는 것 만으로는 대비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문제로 훈련하는 것은 d-100부터 해도 되지만, 적은수의 고퀄리티 문제로 문제접근법과 조건의 해석, 그리고 교과개념의 능숙한 사용을 훈련하려면, d-100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3월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실제로 **효과가 제일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 02. 난 킬러 포기할건데? 안할거야!

### (그럼 안정적으로 92를 받을수 있나?)

- 이런 분들의 주장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하고, 일리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킬러문제를(준킬러 문제도 마찬가지로) “제외하고” 공부하였을 때, 안정적으로 92점이나 96점이 나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불수능으로 갈수록 1점이 내려가는 것은 맞지만, 그에따라 킬러문제나 준 킬러문제의 문항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집니다. 굉장히 불안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게다가, 킬러문제를 푸는 것이 지금의 나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숙제를 보면 답답하고--\_) 해설강의를 듣고 복습했을 때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단계라면, 사실 복습의 과정에서 여러 개념들의 융합상황을 이해할수 있고, 저절로 연산연습이 되면서 전반적인 수학 실력이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내가 킬러문제를 완벽하게 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자괴감에 빠질것이 아니라, 그 문항 하나하나를 복습하면서 문항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과 주어진 조건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것이 사실, “진짜” 수학 실력을 높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3개월이상 지속된다면, 문제를 보는 눈이 단계적으로 길러지게 되고, 결국 진짜 킬러를 못 풀어내는 상황이 오더라도 전반적인 수학실력이 오르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킬러문제만” 풀라는 이야기가 아님을 명심하세요. “킬러문제도” 같이 공부하라는 의미입니다.**

## 03. 어떻게 해야 킬러대비가 되는가?

### (누구를 들어야 하나? 잘못하면 망하는 이유)

#### 첫번째, 도구정리가 답인가?

- 인터넷강의에서, 대치동 유명강사의 강의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도구정리” 도구를 잘 정리해두면, 문제풀이에서 아주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27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3문제에서, 도구정리만을 믿고 풀다가 시험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예는 주위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작년 이과 29/30 , 문과 21/30번)
- 실제로 수능에 필요한 모든 도구는 이미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미 한번정도는 배운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잘 알려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학습방법이 필요합니다. 수업도 그렇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 두 번째 , KiLLER 문제를 유형화 하는 것이 답인가? 효율적으로?

- 역시 인터넷 강의와 대치동 유명강사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대치동에서 강의를 하지만, '유형화' 라는 것 자체가 이미 뒷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출문제에 소개된 것들을 유형화하여 빠르게 풀어내는 훈련은, 강의를 들을때는 만족스러우나 9월 이후에 수험생들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이건 도움이 안되는데?'
- 기출문제를 풀면서 본인 스스로 유형이 정리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학습의 결과입니다만, 그걸 남이 정리해주는 것을 들으며 '이거구나!' 하는 것이 부질없음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수학에는 1년을 보고 장기적인 시간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단물만 썩썩 빼먹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그렇다면 어떻게 KiLLER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가?

- 기출문제의 분석이 우선과제입니다. 단순히 빠르게만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출제의도역시 파악할 필요가 있고, 연산량을 훈련하기위한 풀이도 해야합니다.  
그리고 풀이자체가 "**교과개념으로 해결**" 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 그리고 "출제의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에는 절대로 동의할수 없습니다.  
또, "강사가 100명이면 100가지의 풀이가 있다" 라는 말 역시 궤변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교과개념이 있고, 그 방향에 맞추어 문항이 구성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있지만, 그 부분 역시 단순하게 "다양함" 따위로 포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박주혁의 커리큘럼에서는, 이 **킬러문제를 잡기위한 장기 플랜이 시작됩니다.**  
오르비에서 4년여간 학생들과 함께 해온, 이미 검증된 "**킬러문항을 교과개념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이미 시작되었고, 학생들이 힘은 들지만 잘 따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 04. 실전모의고사 활용법

- **수험생**들은, 여름방학부터는 그동안 공부한 개념을 실전에 적용해야 하는 훈련이 필수적인데, 집 or 독서실에서 혼자 조용히 치르는 실전연습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성입니다.

### ①제한된 시간

### ②나와 다른속도로 문제를 푸는 친구들

### ③다양한 난이도에서의 멘탈관리

가 모두 이루어지는 실전모의고사 훈련이 필요합니다.

- 6월평가원 이후부터 가급적 주1회의 전범위 모의고사를 권하며, 9월평가원 이후가 되면 주2회~주3회의 모의고사 경험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 단순하게 경험치만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은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문제를 풀고 난 후의 **피드백**입니다. 따라서, 문항구성이 제대로 잘 된 모의고사로 연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킬러문제에 오류나 오개념이 없어야** 합니다.

-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떠한 개념들이 문제에 사용되었고, 주어진 조건이 어떤 형태로 문제풀이에 적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문제풀이에 사용되는 도구가 여러개로 열려있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잘 사용할수 있는 도구는 무엇인지 등, 다양한 시각으로의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 그래서 양치기만 죽도록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 수능점수가 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고, 운 좋게 내가 공부한 개념과 패턴이 9월 모의평가에 나와서 시험을 잘 본 경우 (이런 상황은 2017 학년도에 있었습니다. 문이과 모두) 제대로된 약점체크가 안되어서 수능시험날에 본인이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한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 27+3 구조인 현행 수능시험에서, (26+4도 마찬가지)

다시한번 이야기 하지만, +3문항을 잡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 ①교과개념에 대한 철저한 이해
- ②기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연산연습
- ③얼마나 지속적으로 킬러대비

훈련문제를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교대오르비의 3월커리큘럼입니다.

효율적인 수업과 관리를 위해 30명 정원마감입니다 첫수업은 공개수업입니다. 그냥 와서 들을수 있습니다 *			
수업 내용	매주 토요일 PM 2:00 ~ 5:30 (3시간반) Enter The Killer	수학의 명작 미적분2(상)	수학의 명작 미적분2 : 매주 STAGE2의 문항해설이 들어갑니다. (첫 수업은 미리 풀어오세요)
1	3.4(토) 1주차 : E.T.K S1 ① - 킬러의 접근법(1)	TOPIC 06. 미적분 복습+응용훈련	첫 수업에서는 2,4,6,9,11, 15번을 풀어오세요.
2	3.11(토) 1주차 : E.T.K S1 ② - 킬러의 접근법(2)	TOPIC 08. 함수의 그래프(1)	3월 교육청 모의고사 풀어오세요 / STAGE2 숙제 있습니다.
3	3.18(토) 3주차 : E.T.K S1 ③ - 미분법킬러① / 경우의수①	TOPIC 08. 함수의 그래프(2)	STAGE2 숙제 있습니다.
4	3.26(토) 4주차 : E.T.K S1 ④ - 미분법킬러② / 확률①	TOPIC 09. 방부등식과 최대최소	STAGE2 숙제 있습니다.

## 4월커리큘럼입니다.

5	4.1(토) 5주차 : E.T.K S1 ⑤ - 적분법킬러①/평면곡선①	명작 미적분2 (하) 추후공지	STAGE2 숙제 있습니다.
6	4.1(토) 6주차 : E.T.K S1 ⑥ - 적분법킬러②/평면곡선②		STAGE2 숙제 있습니다.
7	4.15(토) 7주차 : E.T.K S1 ⑦ - 미적분킬러① / 경우의수②		4월 교육청 모의고사 풀어오세요 / STAGE2 숙제 있습니다.
8	4.22(토) 8주차 : E.T.K S1 ⑧ - 미적분킬러② / 확률②		STAGE2 숙제 있습니다.
4.29(토) 9주차 (현강생무료/비현강생 유료)		[특강] 박주혁 오프라인 모의고사 수학기형 제1회 (범위 - 6월 평가원 수학기형)	

## 5월커리큘럼입니다.

9	5.6(토) 9주차 : E.T.K S1 ⑨ - 미적분킬러③ / 평면벡터①	추후공지	STAGE2 숙제 있습니다.
10	5.13(토) 10주차 : E.T.K S1 ⑩ - 미적분킬러④ / 평면벡터②		STAGE2 숙제 있습니다.
11	5.20(토) 11주차 : E.T.K S1 ⑪ - 미적분킬러⑤ / 경&확		STAGE2 숙제 있습니다.
12	5.27(토) 12주차 (Only 현강생)	[특강] 박주혁 오프라인 모의고사 수학기형 제2회 (범위 - 6월 평가원 수학기형)	
* 4월 이후의 명작 커리큘럼은 명작 미적분2(하) 출간에 맞추어 재공지합니다.			

관리는 이렇습니다.

관리 프로그 램	매주 토요일 수업전/후에 1:1 상담 진행예정입니다. 수업시작할 때 지난시간 복습TEST & 숙제검사, 학부모님께 문자발송해 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은 인강으로도 수강할 수 있게 합니다.
----------------	---

1년 내내, 킬러대비를 위한 콘텐츠가 제공이 되는 커리큘럼입니다.  
'진짜' 도움이 되는 고퀄리티 문항이 어떠한 것 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교재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Enter The Killer** + **수학의작**  
**시즌1**

**개강일**

**2017년 3월 4일 (토)**

**매주 토요일 2:00 ~ 5:30 PM**



마지막으로, 수강한 학생들의 후기입니다.

박주혁t 인강후기 (수학 100)

**이과 100점 후기입니다.**

#박주혁t #후기 #독학생



ridge

작성일 16-11-22 16:10

IMIN 631425

MS 2015

조회수 862



- ridge 님의 2017학년도 대수능 성적표 -

powered by **오르비 모의지원**

구분	한국사	국어	수학 (가)	영어	화학1	생명과학1
원점수	45	95	100	100	45	45
표준점수	45	132	135	138	68	67
등급	1	1	1	1	1	1

\* 이 성적표는 **오르비 모의지원**에 입력된 성적을 바탕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르비 클래스의 **박주혁t**의 인강을 들은 수강생입니다.

일단 가채점이 틀리지 않았다면 100점이 나올것 같습니다.

올해 **박주혁t**의 인강은 강좌의 성격상 강의수가 그리 길거나 강의 시간이 다른 강의에 비해 짧다보니 거의 대부분을 수강했습니다.

강좌의 성격으로는

ATOZ : 개념강좌가 교과서적이라고 해야하나? 명쾌한 개념강좌입니다. (완전히 개념이 없는 학생보다는 교과서나 학교 수업으로 개념을 한번 배운 학생이 들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RKM : RKM강좌는 리뉴얼과 새로나온 강좌 모두 문제가 어려우면서도 교과서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교과개념적으로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잘 적용되지 않았는지가 잘 보여주며 선생님의 강좌를 통해 저에게 부족한 내용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RKM강좌의 경우 킬러문제가 많이 있기에 킬러문제의 접근법, 놓쳐서는 안될 개념 등등을 알려주시기에 21,29,30번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완수 : 한완수 교재를 풀면서 얻어갈 것은 얻어가고 강좌를 통해서 수능에서 조금 더 중요한것?을 선생님께서 선별해주시며 추가로 올려주시는 보충문제로 인해 적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기분 : 수기분을 통해서 기출문제가 원하는 방향 및 접근법을 잘 정립해주시기에 다른 기출에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공도백(베르테르시리즈, 마약N제) : 박주혁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강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도백같은 경우는 그 날의 컨디션에 따라 상황이 좌우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컨디션이 좋다면 내가 평소에 안보이던것들이 눈에 쉽게 보여서 문제를 쉽게 해결 할 수있는데 컨디션이 좋지않아 보이지 않게되면 상당히 고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의 강좌를 통해 박주혁T께서 말씀하시는 "관찰"과 "수식"으로 모두 접근을 하기에 "관찰"이 되지않아도 "수식"으로 해결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강의입니다.

특히 박주혁T께서는 '연산과정'을 중시하시는데 이는 현재 수능 '수학'시험에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6월, 9월, 수능을 보니 판단이 되니 수험생 여러분들도 '수학'이라는 과목에서는 '연산과정'을 많이 연습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강의 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전에 올려주시는 칼럼, 모의고사 직후에 나오는 해설강의(다른 선생님보다 해설강의가 늦지만 늦은만큼 문제를 접근하는 다양한 풀이, 문과라면 이과문제에서 풀어야할 문제, 이과라면 문과문제에서 풀어야할 문제 등 얻어갈 것이 정말 많은 강의입니다.), 특히 올해에 새로나온 박家확통의 경우에 확통은 꾸준히 풀어야하는데 꾸준히 감을 잃지 않게 만들어 주는 문제입니다.(박家の 경우에 강의로는 나오지 않고 문제지와 해설지만 나옵니다.)

글을 적다보니까 글이 두서가 없네요.. 양해부탁드립니다..

내년 수능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PS. 강의 수강내역 첨부합니다.)

혹시 박주혁선생님 강의에 대한 질문이나 다른 질문 있으면 물어봐주세요. ^^



math100  4



작년 현강생 제자입니당~ 고정 1등급~1000이기도 해서 큰 기대 안하고 들었는데 완전 쫄도록 잘가치시더군요 ㅠ ㅠ 킬마 진짜 ㅎㅎㅎ했습니다. 수업할때 자료들도 저작권 철저히 지켜서서그런지 더 믿음이 갔었어요

10/03 19:39 IMIN: 510749 IP: 59.♡.156.236 MS: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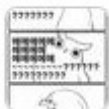


math100  1



그리고 현강 즐잼...

10/03 19:42 IMIN: 510749 IP: 59.♡.156.236 MS: 2014



페흔  1



박주혁t 숨어있는 꿀강사십니다ㅋㅋ 전 다른메이저강사분들보다 훨씬 배워간게 많았네요...(교과외과정x) 교과서기반으로 모든문제를 일관성있게 해설하셔서 납득도 잘가고 배울점도 엄청 많았어요ㅋㅋ 특히 기백 ㅎㅎ

10/05 00:35 IMIN: 630941 IP: 115.♡.28.112 MS: 2015

# 문과 100점 후기입니다.

문과 수학 100점 후기 (feat. 박주혁T)

#반수생 #후기 #독학재수



파우더

작성일

16-11-23 15:42

IMIN 497750

MS 2014

조회수 716



## - 파우더 님의 2017학년도 대수능 성적표 -

powered by 오르비 모의지원

구분	한국사	국어	수학 (나)	영어	세계지리	사회 문화
원점수	44	88	100	97	50	46
표준점수	44	126	141	136	66	65
등급	1	2	1	1	1	1

\* 이 성적표는 [오르비모의지원](#)에 입력된 성적을 바탕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처음엔 기출이라도 제대로 보자 하고 삽자루 선생님 파워 레벨업 강좌를 들으려고 했는데, 개념강의나 긴 문제풀이 강좌를 듣는건 시간 소모가 너무 심하고 공부 효율도 떨어져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파워레벨업은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듣는 대신 강의 노트를 읽으면서 2주동안 빠르게 끝냈어요. 그렇게 문제 위주로 공부한 뒤에 실모 양치기를 하려고 오르비와 스카이에듀등에서 실모를 대량으로 구입했어요. 약 10일동안 실모를 하루에 2개를 막 풀고 채점하고 버리는 식으로 공부하는데, 이게 힘들기만 힘들고, 얻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강의를 긴걸 들을 수는 없고... 디게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찾은 방법은 모의고사 해설강의였어요.

이게 그냥 해설강의를 듣고 모르는 걸 확인하는 방식보다는, 한 모의고사를 풀더라도 제대로 풀자라는 마인드로 시작했어요. 우선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뒤 채점을 바로 하는 대신 해설강의를 재생시키면서 선생님 설명도 듣고, 내 풀이도 반추하면서 풀면서 채점하는거죠. 중간중간에 개념정리나 팁같은것도 모두 정리하고요. 이게 풀이과정이 너무 복잡하거나 오류가 있다면 교정도 되고, 모의고사 하나하나에서 얻어갈 것도 많은 좋은 공부방법이었어요. 또 기출문제 모음집 같은 건 확실히 진도 빠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모의고사는 30문제를 긴장감 있게 풀게 되어서 빠르게 진도를 빼는데 좋더라고요.

제가 이런식으로 공부한 모의고사는 이해원 모의고사, 이해원 파이널 모의고사, 제현이 모의고사, 킬링캠프였어요. 오르비 프리패스를 구매해서(그래서 레벨이;;) 박주혁쌤의 모의고사 해설강의를 하루에 한회씩 수강하고, 현우진쌤의 킬링캠프는 모르는 문제만 수강했어요. 박주혁쌤은 특이하게 모든 문제를 전부 풀어주시고 필요한 개념정리를 해설강의 중에도 디게 자세히 해주셔서 개념정리랑 약점 체크하는데 좋았어요. 공부용 해설강의로는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또 이게 이해원씨랑 이제현씨 두분 문제가 디게 좋아서 문제 하나하나가 개꿀이더라고요. 현우진 선생님의 킬링캠프 해설강의도 많은 문제를 풀어주시진 않지만 어려운 문제를 접근하는데에 도움이 되었어요.



1. 박주혁선생님의 강의를 선택하게 된 이유

원하는 대학에 정말 아깝게 떨어지고 삼수를 결심했습니다. 솔직하게 수학은 내신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았고 모의고사는 1~2는 나왔던터라 크게 두렵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한해를 보내야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 때 발견한 것이 당시 오르비 이벤트였는데 한완수, 수학영역의비밀, 모의고사, 박주혁선생님강의를 묶어서 패키지로 파격적인 할인가로 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이걸 대박이다...!!하는 생각으로 바로 결제를 하였고 강의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 이벤트로 결제한 강의는 기간이 정해져있던 강의였는데 듣다보니 강의가 너무 마음에 들고 도움도 많이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박주혁선생님의 전설의 멘붕멘붕한 공간도형벡터 베르테르 시리즈강의도 시간적으로 여유롭게 공부하고 강의듣고 싶었고 선생님 개념강좌도 때때로 다시 복습하기 위해 박주혁선생님프리패스도 구매하게됐습니다.

2. 박주혁선생님 강의의 장점과 단점 혹은 타 선생님과의 차이점.

장점은 기출문제를 접근하는 눈을 뜨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방대한 양의 문제를 풀면서 풀이를 익혀왔는데 선생님께서 다뤄주시는 기출문제 풀이들을 수강하고 복습하면서 수능을 준비하기위해 정말 정의에 입각한 풀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금 고민하게 되었고 실제로 문제속의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해가고 체크하며 풀어가는 습관도 갖게 되었고, 무언가 새로운 눈을 다시 뜨게 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강의가 많이 길지 않기에 지루하지도 않았고 강의시간이 많이 길지않음에도 정말 핵심을 콕콕 짚고 넘어가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단점은 교재 프린트의 내용이 전체가 올라온 것이아니라 부분만 업로드 된채로 있었던 적이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파일전체인줄알고 집에서 먼곳의 제본하는 곳까지 가서 제본하고 왔다가 부분파일인걸 깨닫고 멘붕에 빠졌던적이있었죠...(다시 완전한파일가지고 제본하러가야하니...) 아무튼 이부분은 제가 오르비에도 건의하고 박주혁선생님께도 건의하여서 잘 해결되었습니다. \* \* 개인적으로 강의에서 단점은 잘 못느꼈습니다.. 박주혁선생님은 제가 들었던 다른 수학인강선생님과 달리 제가 질문을 올리면 직접답변을 써주시고 또 저의 답변을 위해 에이포에 다시금 증명과정도 써주시는 세심한면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3. 선생님강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본인이 수능에서 얻은 효과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정의에 입각한 풀이를 잘 생각하였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유심히 보며 푼 결과 꽤나 난이도 있던 21번 30번같은 문제를 시험장에서 침착하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능외에 모의고사에서든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나는 조건과 정의를 적용하여 풀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정말 수학에 대해 자신감과 실력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4.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선생님 커리큘럼 수강 팁이나 학습팁

박주혁선생님강의를 수강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은 적어도 한번은 개념공부를 마친 학생들이입니다. 개념강의를 빠르게 먼저 수강한 후 반드시 강의듣기전에 미리 교재의 문제를 풀어놓고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시면됩니다. 그리고 저같은경우엔 풀이도 교재에 적어놓고 선생님풀이를 필기해놓고 다시 복습하며 어느 풀이가 더 빠르고 다른문제에도 잘 적용할 수 있을까에대해 고민을 하면서 다양한 풀이에 대한 사고를 키워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과생의 경우 베르테르 공간도형벡터시리즈는 정말 고민고민하셔서 스스로 풀어내고 강의를 들으시면 정말 도움많이 되실겁니다.

5. 선생님의 강좌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박주혁선생님 강좌는 공양미300석이다. 심청이는 공양미 300석으로 자신의 아버지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박주혁선생님강좌도 공양미 300석의 역할을 하여 기출문제를 보는 저의 눈을 띄웠다생각하기때문입니다.

6.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하고싶은말

선생님 그동안 좋은강의, 칼럼 너무나 감사했고 가채점포 잘 활용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실전수학  0



박주혁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일단 책의 구성을 살펴 보면,

1. 패턴 설명 2. 기출 문제 3. 처음 보는 문제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의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1,2의 과정을 빠르게 넘어가시고 강의를 들을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

강의를 들어보면서 느낀 것은 선생님께서 기출분석을 꽤 오랜기간 동안 하시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노력하신 게 눈에 보이더라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12수능 30번, 11수능 25번 풀이를 보면서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 풀어보는 문제를 해설 하실 때에도 답지의 풀이도 강조하시지만 다른 접근도 보여주시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 강의의 방향

보통의 인터넷 강의나 재수종합반 강사분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말의 앞뒤가 다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카칩님이 언급하셨던 삼각함수의 극한, 케일리 헤밀턴의 정리 같은 것을 말이죠

박주혁 선생님은 풀이를 보면 항상 일관된 방법으로 , - 어찌보면 지켜올 수도 있지만

푸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갓삼수입니다 ㅎㅎ(크리스마스에 쓰는거지만 이브에 데이트하고 왔습니다^^ㅋㅋㅋㅋ)

저는 이번에 삼반수를하여 7월부터 박주희선생님 현강을 들었던 학생입니다.

먼저 후기에 앞서 제 얘기를 좀 해야할거 같네요.

저는 현역때 (수학) 84점 2등급 반수 89점 3등급 삼반수 100점 1등급으로 나를 스펙타클한 등급변화가 있었습니다.

반수까지만해도 제 자신의 문제점도 잘 파악하지 않은채 그냥 양치기만 했었습니다.

123등급 왔다갔다하는 정도면 212930, 실수 이 두가지는 대비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ㅠ

그래서 삼반수때는 212930 대비하자! 하여 저한테 꼭맞는 수업을 찾고 있었고 그때 혜성처럼 등장하신 박주희선생님!

ㅇㅇ 킬러마스터 맛보기 강좌보면서 수업스타일이 저랑 딱 맞다고생각하여 바로 현강 신청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대망의 첫수업!! 아오 10분지각이다 ㅠㅠ

모르비 모의고사도 풀고 킬러문제도 풀생각에 두근두근거리면서 문을 여는데... 엇..?

수강생이 n명?( $1 < n < 10$ ) 흠... 할케 적지? 라고 생각했지만(선생님 너무 솔직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늦었으니 모의고사 풀  
어보자!

1시간30분이 흐르고... 후.. 모의고사 어렵긴하지만 쫄지렸다 ㄷㄷ 하면서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딱히 수강생 신경쓰지 않아서 박주희선생님 유명하신데 좀 적네.. 그냥 그정도만 생각했네요 ㅋㅋ

10분 쉬는시간후.. 모의고사 해설시간~ 21 29 30 설명해주시고 다른 문제에서도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주셨습니다! 정말  
교과서적으로 설명해주시더군요.

첫수업은 정말 대만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시간부터는 모의고사해설하고 속제로 킬러문제 3문제정도 내주시거 자세  
하게 해설해 주셨습니다.

첫수업 인상이 강해서 그냥 스토리식으로 써봤는데 이제는 특징만 적어볼게요. ㅋㅋ

### 1. 선생님의 메인은 그냥 있는게 아니란다?

“교과개념으로 패턴화된 수능판통!” 이 3마디가 수업을 한줄로 요약해주네요.

선생님은 212930 해설하실때 교과서적으로 푼다는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직관을 쓸법한데(물론 가르쳐주십니다) ‘정도’를 묵묵히 걸으십니다 ㄷㄷ. 교과서를 정말 잘 분석하시는거 같습니다. ㅎㅎ

위에 팔중에 <가나다 적분, 느낌? 계산해보자>가 딱 선생님의 특징을 잘 설명해줄거 같아서 첨부해봐요

### 2. 212930은 나에게 맡겨 (공도백은 떠먹여주지)

행렬 ㄱㄴㄷ 빈칸문제 이런것들은 제껴두고 정말 미적분공도백이 90%차지 했던거 같아요. 나머지는 지표와가수 아니면 갯수세기문제 정도? 숙제도 많지 않아서 생각할 시간이 많았네요.(한문제 30분정도) 그래서 212930 접근하는 사고방식이 점점 깔끔해지고 날카로워지는 느낌받았어요.

아 그리고 미적분도 좋았지만 공도백은 일정한 틀안에서 설명해주시는데 정말 수능공도백에 맞게

설명해주시더군요. 올해 수능21번 29번 풀때 오르비모의 클론인가? 싶을정도로 익숙한느낌 받았어요. 29번풀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공도백2문제 첨부해봐요! (위팔)

여기까지 선생님만의 특징인데...

이렇게 좋은 수업방식임에도 잘 활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 안타까워요.

이글은 **박주혁**선생님 현강후기글 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수업을 활용했는지는 쪽지나 댓글로 대신하겠습니다!(아마 선생님이 댓글 달아주실지도..? ㅎㅎ)

후기를 마치며...

내년 수학교과과정은 바뀌게 되었는데 선생님의 교과서분석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선생님 화이팅!

# [단독] 올해도 불수능...평가원 "쉬운 것보다 어려운 게 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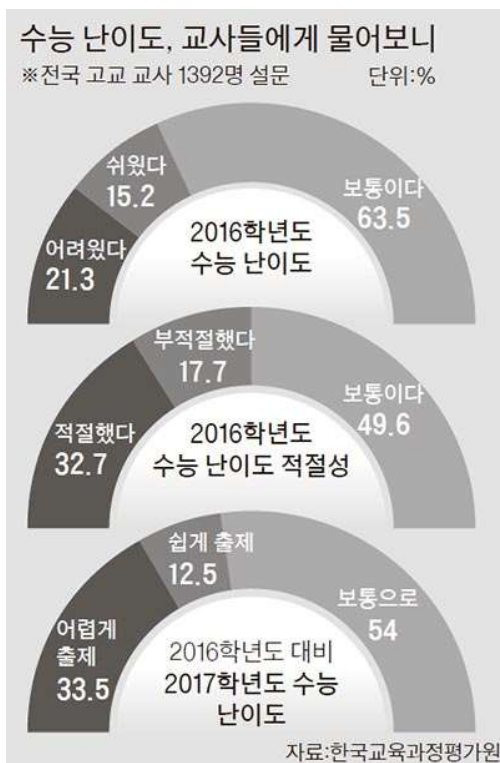
[중앙일보]입력 2017.01.16 02:30수정 2017.01.16 03:08

남윤서 기자

올해 고교 3학년이 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지난해 수능과 같이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수능을 출제·관리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은 어려운 것이 쉬운 것보다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올 수능에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의 2017학년도 수능이 '6년 만의 불수능'이라 불릴 만큼 어려웠던 것을 감안하면 올 수능에서도 불수능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본지가 입수한 평가원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수능 출제를 총괄하는 수능출제연구팀은 지난해 전국 300개 고교 교사 1392명을 대상으로 수능 난이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가 나온 것은 수능을 석 달 앞둔 지난해 8월이었다. 평가원이 수능을 앞두고 교사들에게 난이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은 최근 5년 새 없던 이례적인 일이다.

설문조사 직전의 2016학년도 수능은 '끓는 물수능'이라 불릴 정도로 어려웠다. 직전 4년간 '쉬운 수능' 기조가 유지됐으나 어렵게 출제되자 수험생이 이렇게 부른 것이다. '불수능'이라 부를 수준은 아니어도 그동안의 '물수능'보단 상당히 어려웠다는 의미다.



실제 교사들 사이에선 이 수능이 '어려웠다'(21.3%)는 반응이 '쉬웠다'(15.2%)보다 많았다. 나머지(63.5%)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이 수능의 난이도가 적절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평가원의 예상 밖이었다.

난이도가 '적절했다'(32.7%)가 '부적절'(17.7%)의 두 배 가까이 많이 나왔다. 더욱이 "직전보다 수능 난이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더 어려워야 한다"(33.5%)가 "쉽게 출제"(12.5%)의 세 배에 가까웠다. 비율로 본다면 지난 수능이 "어려웠다"고 한 교사들 사이에서도 "더 어렵게 출제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이를 토대로 연구팀은 "수능은 어려운 것이 쉬운 것보다 적절하다는 반응"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서 "2016학년도 수능은 난이도 조절과 변별력 측면에서 가장 성공한 수능이란 평가가 나왔다. (교육) 현장에 변별력 확보 요구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보고서가 나온 후 석 달 뒤의 수능은 실제로 직전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됐다. 국어·영어·수학 세 영역의 만점자가 모두 1%가 되지 못했다. 이런 현상은 2011학년도 이후 6년 만이다. (이 수능이 2017학년도 수능입니다)**



평가원은 왜 이례적인 조사를 했을까. 평가원은 “지난해 수능은 한국사가 필수가 되고 국어의 A·B형 구분이 사라지는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출제에 참고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평가원은 **“보고서 내용은 유효하며 향후 수능 출제에 반영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평가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수능 출제에도 설문 결과를 참고했다.

**올 모의평가와 본 수능에서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엔 올해 수능도 지난해처럼 어려운 수능 기조가 이어질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 또 있다.**

연구팀은 보고서에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 영역에 절대평가 체제가 도입됨으로써 난이도 일관성 유지에 대한 학교 현장 요구가 증대될 수 있다”**며

**“접수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고 밝혔다.

작년 수능 이후 수험생들이 어려운 수능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일관된 난이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이창훈 수능본부장은 올해도 수능본부장을 맡아 출제 작업을 지휘할 예정이다.

올해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장기적으로 수능 제도에 변화가 올 수는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수능 3년 예고제’에 따라 올해 고등 2학년이 보는

**2019학년도 수능까진 현재의 골격이 유지된다.**

입시 전문가들은 평가원이 수능 출제 기조를 완전히 바꾼 것으로 해석한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연구소장은

**“변별력 높은 수능이 나오자 어려운 수능으로 출제 기조를 확정**한 것 같다.

올 수능도 영어 절대평가로 변별력이 낮아진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출제 당국이 **국어·수학**에서 변별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l@joongang.co.kr](mailto:nam.yoonseol@joongang.co.kr)